

메르스 신고, 그 이후 절차에 대하여

중동 여행 후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1339에 문의한 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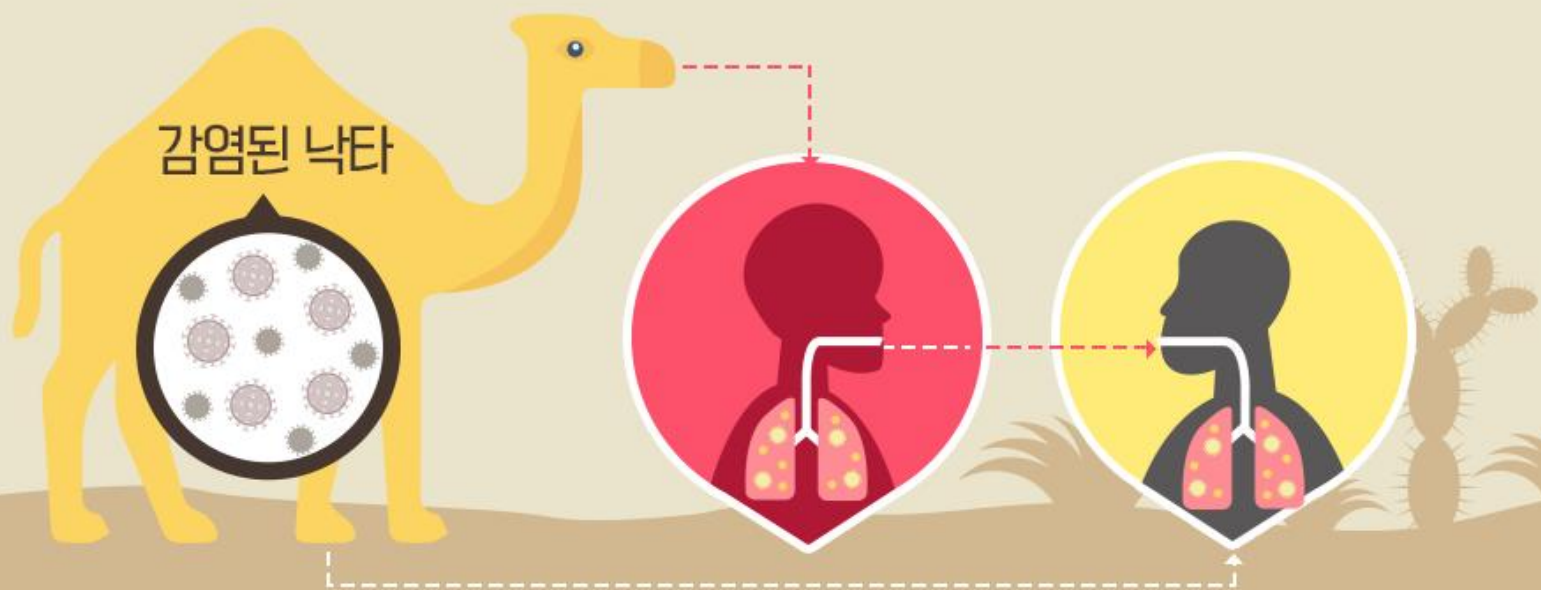
2015년 5월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중동 여행객 1명의 메르스 환자로부터
185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한 후 유행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는
메르스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합니다.

메르스는 감염된 낙타로부터 전파되지만,
감염된 사람으로부터도 전파될 수 있으므로
국내 유입 시 빨리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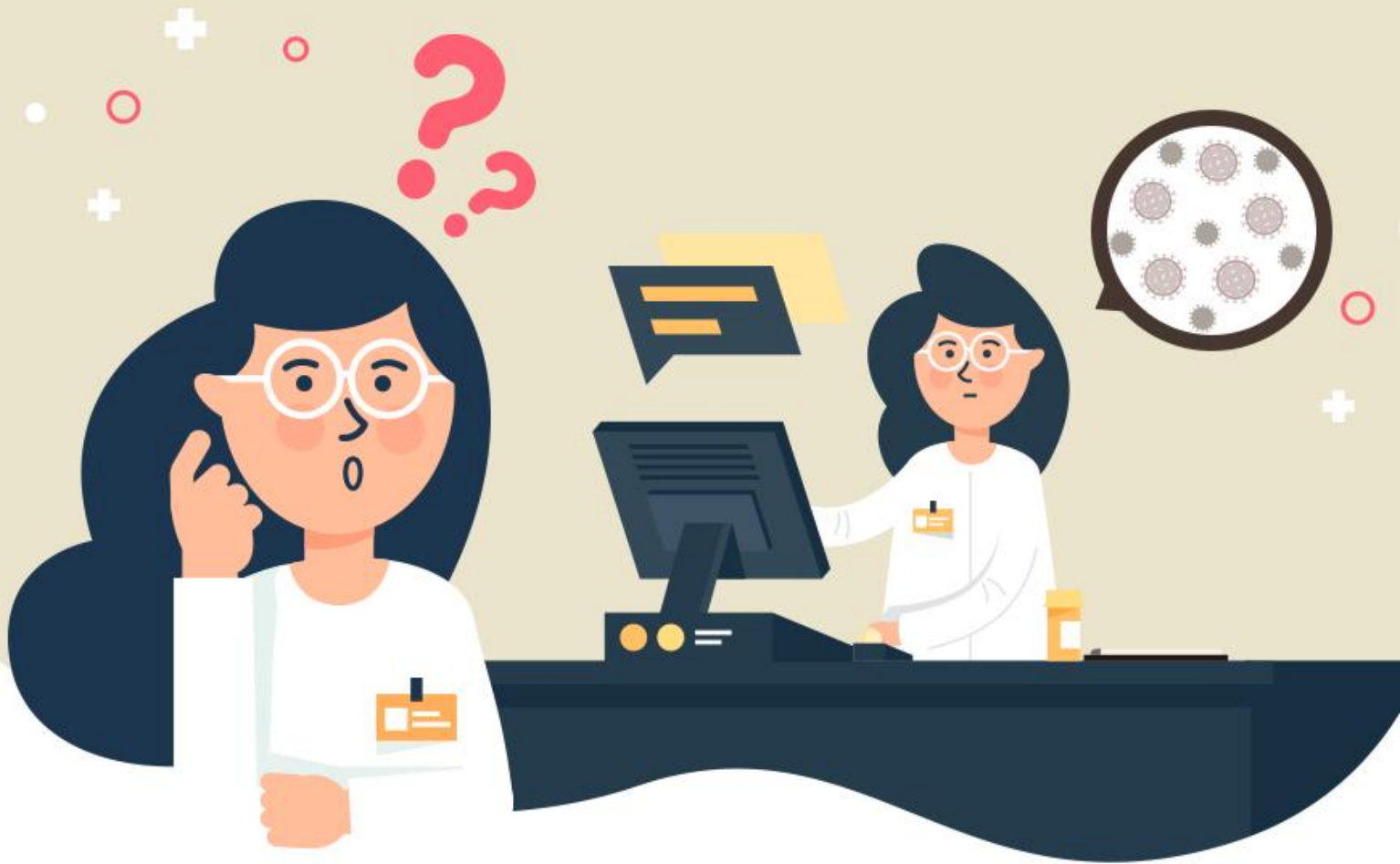


그래서 중동 여행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
가기 전 먼저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신고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소 담당자가 **기초역학조사**를 시행합니다.
 기초역학조사는 인적사항, 중동 여행력, 낙타 접촉력이나
 의료기관 방문력과 같은 **위험요인**, **증상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역학조사를 마친 후 결과를 토대로 **역학조사관이**
메르스 의심환자에 해당되는지 판단합니다.





전신보호복

메르스 의심환자로 판단되면 보건소 담당자가 대상자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이때, 보건소 담당자는 마스크, 장갑,
 전신보호복 등의 개인보호구를 입습니다.



• 접촉자 조사 •



접촉자를 조사하고,
증상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 입원 및 검체 채취 •



음압병실*에 입원하여
검사를 위해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왜 음압병실에 입원하나요?

아직 메르스 감염 여부를 모르는 상태이므로 병실 밖으로의 병원체 전파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실 안의 압력을 밖보다 낮게 유지하여 공기가 흘러나가지 않게 하는 음압병실에 입원합니다.





메르스 검사는 중동지역에서의 활동, 증상에 따라 1회 또는 2회 실시하게 됩니다. 1회만 검사할 경우 입원 후 1일 이내, 2회 검사할 경우 최대 4일 이내 최종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메르스 음성’ 이 확인되면
격리가 해제되고, 퇴원합니다.

만약, 메르스 이외 다른 불편 사항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격리해제 후 치료를 진행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격리를 지속하게 됩니다. 격리 기간동안 **메르스와 관련된 검사,**
입원치료 비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합니다.

(단, 메르스와 관련 없는 입원, 진료, 치료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므로 의료기관과 상의 후 진행)



○ 메르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 보건당국, 의료기관, 검사센터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메르스 대응!
 여러분의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중동여행 이후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 가기 전 먼저 1339 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꼭 전화해주세요!